

“남편 이강하 화백에 고생했다는 말 못해 천추의 한”

이정덕 오월어머니집 사무총장 시민군 이 화백, 6개 혐의 옥고 2008년 진상규명 없이 투병사망 “선생-제자 만남… 항쟁 후 고난” 유족 재심 노력 지난해 무죄선고



“이제 나이가 들어 깜빡깜빡하는데, 80년 5월 그이와의 일들은 모두 기억나요. 무죄 소식 못 듣고 보낸 게 그저 한스러울 뿐이지요.”

최근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에서 만난 이정덕(74·사진) 사무총장은 엄혹했던 44년 전 그날이 생생하다. ‘5·18 시민군’ 고(故) 이강하 화백의 배우자인 이 사무총장은 당시 자신의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 밤을 지새웠다. 시민군이 군경에 끌려가 갖은 고문 등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혹 그이일 까’ 하고 한결숨에 달려가기도 했다. 이 화백과 이 사무총장 모두 쫓겨온 20대였다.

꿈 많던 젊은 부부는 광주항쟁을 겪으며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미술로 만나 사랑을 싹틔우던 신혼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붉은 물감으로 얼룩졌다.

“남편은 1980년 27살 늦깎이로 조선대학교 미대에 들어갔어요. 고향 영암에서 통학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죠. 학교가 끝나면 미술학원 선생님을 해 등록금을 벌었어요. 저와는 그때 학생과 제자로 처음 만났죠. 되돌아보니 아무 걱정 없던 시절은 그때뿐이었네요.”

이 화백은 80년 5월 21일 미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한 학생이 공수부대에 원에 구타당하는 현장을 목격한다. 그가 남긴 회고록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적혔다.

이 화백은 공장 영암서 시민군을 모아 항쟁에 참여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북으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군 추방하

라’ 현수막을 제작했다.

버스를 몰고 가던 중 송암동 등서 무장계엄군에 광주 길목이 막히자, 강진과 해남 파출소에서 총기 탈취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전력으로 1986년 총포 화약류 단속법·포고령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아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상무대 출소 날인데 남편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도 때려 성한 곳이 없으니 날짜가 미뤄졌던 거예요. 무기고 탈취 주동자라고 많이도 끌려갔죠. 겨우 만난 남편은 병어리마냥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림만 그렸습시다. 유일하게 한 말이 ‘나는 이제 또 들어가면 죽는다’였어요.”

당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이 사무총장은 그해부터 가장이 돼야 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딸과 아들 그리고 이 화백의 뒷바라지를 했다. 한스러운 가족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텨내듯 살아갔다. 그 사이 이 화백은 5·18의 아픔을 풀어낸 작품 ‘맥(脈)’ 연작을 발표한다. 맥은 평단에서 1980년대 대표 작품으로 꼽힌다.

건강하던 이 화백은 2001년 갑작스레 직장암 판정을 받는다. 수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08년 3월 유작 ‘무등산의 봄’을 남기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한순간에 앓아누웠어요. 오월 후유증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고통스러운 건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즉시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월’ 하나만 보며 살게 됐어요”

이 사무총장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 화백의 그림이 있던 광주 남구에 모든 작품을 기증했다. 이는 2018년 이강하미술관이 세워지는 단초가 됐다. 오월어머니집 활동도 시작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열심을 다했다.

▶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2·3·4·5면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 눈물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오월이다. 44년이 지났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기리며 참배객 모두 고개를 숙인다. 유가족들의 눈물도 메말랐다. 자식을 잃은 노모의 가슴은 한(恨)으로 채워졌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도 하얗게 됐다. 가슴 속 응어리는 여전히 여전한데 이제 묘역마저 찾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늘어간다.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오월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서둘러야 한다. 사진은 2004년 5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하는 5·18 희생자 고 김상구씨의 어머니 나점례 여사. 매년 묘역을 찾아 아들의 묘비와 사진을 어루만졌던 나 여사는 안타깝게도 2023년 1월 타계했다. ▶ 관련화보 4면 김양배 기자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민주 경선 추미애 탈락 이변
이재명 “당선자 판단이 곧 당심”

우원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진선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총 169표 중 과반을 얻어 추미애

의원을 꺾었다.

당초 추 의원이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얻어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 예상을 뒤집은 이변이다.

우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립은 불가치가 아니다”라며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권



리를 향상시켜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우 의원이 선출된 것에 “당선자들의 판단으로 당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선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의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선출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주최·주관